

활동지 구성 최유라 충북 청원초등학교 교사

돈가스를 시켰는데 살아 있는 돼지가 배달되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을 뒤엎는 강렬한 이야기



사라진 저녁

권정민 그림책 | 창비 2022

먹음직스러운 음식 대신 살아 숨 쉬는 돼지 한 마리가 배달된 아파트. 돼지의 몸에는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 직접 해 먹으라는 식당 주인의 쪽지가 붙어 있다. 돼지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허둥대며 엉뚱한 방향으로만 돌진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겠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마음 한쪽이 뜨끔해질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는 탓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인간 편의를 위해 동물권과 환경이 희생된다. 그다음에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강렬한 그림책이다.

표지 살펴보기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표지를 자세히 살피며 줄거리를 예상해 봅시다.



사라진 저녁

윤정민 그림책

◆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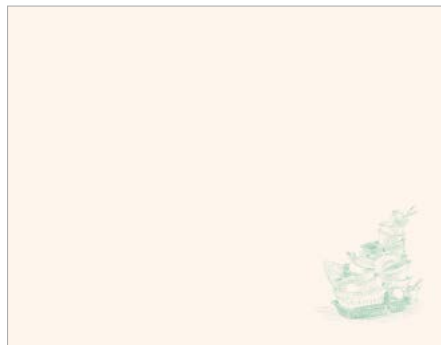
◆ 어지럽게 흐트러진 식탁과 제목을 연결 지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표지와 붙어 있는 앞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 집의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우리 집 주방 풍경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비교해 보세요.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환경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만약 우리 집에 살아 있는 돼지가 배달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글로 설명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상상해서 쓰거나 그려 봅시다.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살아 있는 닭이 배달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닭은 어떻게 될지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제목 다시 보기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십 년 전의 저녁 식사 모습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어른에게 물어보고 현재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과거 모습	현재 모습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녁 식사 모습은 어떨까요?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책의 줄거리를 떠올리고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